

즐겁게, 오래도록 연구하기 위하여:
장르·공동·현장 연구의 실천적 문제들 토론문

이지용(단국대)

최혜령, 서원득 선생님의 글은 한국에서의 '(인)문학' 연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변화 양상들을 직접 몸으로 겪어내면서 고민했던 흔적이자, 몸부림의 증언이다. 특히 기존의 제도권과 학술계에서 애써 외면했던 영역부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면모들에 대해 정리된 문장들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시된 장르, 공동, 현장 연구라는 단어들은 기존의 학술장에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언급된 것 외에도 다양한 한계들에 의해서 굴곡진 형태로 머물러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애써 그것들을 꺼내어 드러낸 것이 반갑지만 슝스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되어야 비로소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드러냄들이 이후로도 계속되어 한국의 학술장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인 맥락들의 변화가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발표문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는 각각 나눠진 세 가지의 영역(장르연구, 공동연구, 현장연구)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구조적인 면모들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무언가로 머물러있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영역들이 긴밀하게 연관되는 지점들을 선불리 언급하면, 오히려 기존의 구조에서 익숙한 방식들에 손쉽게 의존하게 되고, 그것은 발표문에서도 언급한 일정한 구조에 '통과 가능한 형태'로 가공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언급된 세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을 되짚어 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장르연구'에 대한 경험들이다. 언급된 것과 같이 장르연구는 기존의 (인)문학 연구장에서 '새로운 현상' 혹은 기존의 방법론이나 텍스트에 대한 출구전략과 같은 형태로 여전히 취급되고 있다. 해당 영역에 대한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는 개별 연구자들의 성과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이론 구축과 토론하는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지점들을 한국에서 (인)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은 '장르적 역량'이라는 것에 대한 지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희미하다는 것이다. 장르적 역량은 개별적으로 장르가 가지고 있는 서사적 관습부터, 장르가 형성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실천과 소비 현상들과의 상호작용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장르라는 언표가 문학장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달리, 서사 안에 머무르는 방법론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다양한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장르연구를 표방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들이 발표되었음에도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리가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의 장르연구에 대한 단편들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으며, 특히 다루고 있는 무협, 판타지, 웹소설이라는 장르 및 매체에 대한 연구의 성격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는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대해

서 원고의 형식에서는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실제 장르연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인)문학 학술장이 갖춰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공동연구’에 대한 경험들이다. 해당 경험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학술지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량화되고 수치화된 평가제도들로 인해서 연구자들은 각자도생과 상호 견제에 대한 감각들을 필연적으로 내재화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들을 환경적으로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의 내재화는 연구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공동연구의 기회들을 지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경험들을 나누어준 것이 의미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르연구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공동연구로서의 효용이 큰 영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언급한 ‘장르 연구에 있어서 인식론적 지평의 확대와 상호 검증’이라는 것이 나타난 대표적인 예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는 공동연구가 가지고 있는 효용을 확대하여,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의 한계들을 과감하게 확장하고, 이후의 연구들의 방향성 또한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현장연구’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장에서는 한국의 문학장에서 다양하게 인식되고 호출되었던 ‘광장’을 지난 12·3 내란 발발 이후에 ‘감각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지점이 흥미로웠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현장을 연구의 형태로 담아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이 계속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앞서 제시했던 장르연구와 공동연구라는 형태적이고 형식적인 방법론들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구되었다는 것이 현대의 장르연구가 가지고 있는 지평들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시한 현장연구의 의미들이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르연구의 속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인지에 대한 필자들의 생각을 묻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장르연구를 넘어서 좀 더 넓은 층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이라면, 현대의 현장에 대한 연구들을 위해서라도 장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한 학술적, 구조적인 정비들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략된 ‘즐겁게, 오래도록 연구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한국의 (인)문학 학술장에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 효용과 기능을 우선시하고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어느덧 우리 모두가 잊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과감하게도 즐겁게 오래도록 연구하고 싶다는 선언을 하면서 어떠한 지경을 그려보았을지 솔직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